

## 전쟁의 위기와 유럽통합: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배경

김 유 정\* · 김 성 주\*\*

### 〈국문초록〉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 주었던 EU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연이어 발생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연속으로 혹자는 유럽의 미래가 암울하다고까지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EU의 지속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U는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한다면 보다 견고한 정치 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민족주의 기승 및 압력 속에서 EU는 여전히 다양성 속의 통일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의 위기와 유럽통합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루는 본 연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위기와 유럽통합 발전의 상관성에 대해 시사점을 찾는 데 주된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70년의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은 여러 번 위기에 직면했다.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EDC) 조약이 좌초되어 통합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질문을 제기하는 기자들 앞에서 장 모네는 유럽이 위기를 통해 통합의 방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럽통합의 첫 번째 기구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발전은 20세기 양차 세계 대전 그리고 냉전이라는 유럽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장 모네는 유럽이 위기 속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ECSC의 기원과 초국가적 유럽통합 방법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sylvic12@daum.net)

\*\* 경상국립대학교 석사과정생 (doktor@naver.com)

보면서 전쟁의 위기가 어떻게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유럽연합의 위기, 유럽연합, 장 모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초국가주의

## 차 례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전쟁의 무덤에서 피어난 유럽통합 사상: 연방주의, 기능주의,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 | V. 참고문헌 |
| III. 전쟁을 예방하는 해결책으로서 ECSC                         |         |

“나는 유럽이 위기 속에서 구축될 것이고, 유럽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총체가 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Jean Monnet)<sup>1)</sup>

“당신이 만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향을 바꾸지 말고 곧장 가로질러 가는 것이다.” (Jean Monnet)<sup>2)</sup>

## I. 서론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 주었던 EU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연이어 발생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 이민과 난민 문제에서 불거진 사회적 통합위기, EU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 등 현재 EU가

1) Jean Monnet, *Mémoires* (Paris: Fayard, 1976), p.488.

2) FJME (Fondation Jean Monnet pour l'Europe, 이하 FJME) AMM: Note manuscrite de Jean Monnet, [non daté]

직면한 위기의 성격은 다차원적이며 연속적이면서 동시다발적이다. 위태로운 상황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유로존 위기에서 시작했다. 이 위기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2015년 13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난민이 유럽에 유입되었다. 이는 외국인 혐오와 같은 불안감, 반이민정서를 부추기는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조성했다. 2016년 브렉시트(Brexit) 결정은 이러한 위기의 결과이자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의 연속으로 혹자는 유럽의 미래가 암울하다고까지 진단했다.<sup>3)</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럽통합 지속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합된 유럽은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한다면 보다 견고한 정치 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민족주의 기승 및 압력 속에서 통합 유럽은 여전히 다양성 속의 통일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sup>4)</sup>

유럽통합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역사학자 지로(René Girault)는 “현재의 유럽은 이와 같은 의구심의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통합 과정에서 유럽은 여러 번 위기에 직면했고, 그럴 때마다 다수의 의구심과 회의적인 반응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만, 이러한 의심에 찬 질문이 오히려 오늘의 유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그의 설명의 요지는 유럽통합의 역사가 수많은 위기와 위기관리를 통해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지로의 주장은 “유럽이 위기를 통

3) 프랑스 정치학 대학(Science Po) 유럽외교 및 역사학과의 칸(Sylvain Kahn) 교수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위기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2005년 이후로 전개된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위기, 둘째, 2008년 이후의 경제 및 사회적 위기, 셋째, 2011년 이후로 전개된 지정학적 위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즉, 현재 EU는 정치, 경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여 전혀 없는 다차원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EU는 과거의 위기가 제도약을 통해 도전과 난제를 극복했던 것과 달리 제도약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Sylvain Kahn, "Les crises dans l'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de 1950 à nos jours: comparer pour comprendre," *L'Europe à l'épreuve des crises*, colloque du 21 octobre (Oct, 2016), pp.7-8.

4) 유로존 위기에서 난민 위기, 그리고 브렉시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위기 과정에서 벌어진 존페 논쟁과 브렉시트의 현실화는 유럽통합이 더 심화한(ever closer union)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해체(disintegration)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남겼다.

5) René Girault (dir.), *Identité et Conscience européennes au XXe siècle* (Paris: Hachette, 1994), p.13.

해 통합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장 모네(Jean Monnet, 이하 모네)의 사유와 연결되어 있다.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 EDC) 조약이 좌초되어 통합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질문을 제기하는 기자들 앞에서 모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은 모든 난관과 위기를 통해 강해지고 통합하는 방식을 알게 될 것이다.”<sup>6)</sup> 그의 단호한 설명에 따르면, 유럽의 위기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지난 70년의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은 여러 번 위기에 직면했다. 더욱 견고한 차원의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 위기는 발목을 잡기도 했고 반대로 유럽통합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다지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다. 따라서 유럽의 위기는 거대한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럽통합의 첫 번째 기구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20세기 양차 세계 대전 그리고 냉전이라는 유럽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모네가 “유럽이 위기 속에서 태어났다.”<sup>7)</sup>고 단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은 인류 문명을 파괴했지만, 역설적으로 파괴는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기도 했다. 20세기 초, 유럽 전쟁은 역사상 전대미문의 살상과 파괴를 남겼지만, 반면 전후 유럽통합 건설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된 연방주의(federalism), 기능주의(functionalism) 그리고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이 이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전쟁에는 늘 역설이 존재했고 파괴와 창조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럽의 전쟁이 유럽이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과 조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의 위기와 유럽통합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루는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

6) Jean Monnet, *Mémoires*, p.488.

7) *Ibid*.

## II. 전쟁의 무덤에서 피어난 유럽통합 사상: 연방주의, 기능주의,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

“평화는 그것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 없이는 결국 지킬 수 없다. (Jean Monnet)<sup>8)</sup>

프랑스 정치가였던 베르투완(Georges Berthoin)은 “유럽은 인간의 가장 큰 역경인 전쟁의 상흔 속에서 태어났다.”<sup>9)</sup>고 설명했다. 20세기 초 유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민족으로 분열되었고 불안정했으며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전쟁의 참혹함은 분명 유럽통합의 담론이 활성화됐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위험성과 문제점 인식하는 사고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서 유럽통합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이 전쟁의 한 가운데서 다듬어졌다. 본 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논의되었던 유럽통합 사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럽통합 사상이 항구적 평화구축과 유럽통합 기구의 발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본다.

### 1) 스피넬리(Altiero Spinelli)의 연방주의 구상과 벤토테네 선언<sup>10)</sup>

8) *Ibid.* pp.349-341

9) Georges Berthoin and Éric Roussel, “[Entretien]: L’héritage de Jean Monnet, entretien avec Georges Berthoin réalisé par Eric Roussel”, *Revue des Deux Mondes*, AVRIL 2012 (2012).

10) 스피넬리는 1927년 반파시스트 혐의로 체포되어 20세의 젊은 나이에 파시스트 특별재판소에서 16년 형을 구형받았다. 1939년 이탈리아 중서부 지방의 벤토테네라는 작은 섬에 유배된 그는 그곳에서 반파시스트이자 자유주의 연방주의자였던 로시 등을 만나 연방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이선편, 「‘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유럽통합 사상과 전략-스피넬리의 입헌적 접근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 16권 제 1호, 2009. p.144. 스피넬리의 연방주의 사상 및 유럽통합 활동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문석, 「1940년대 이탈리아의 유럽 연방주의 이념의 형성: 스피넬리의 연방주의론을 중심으로」, 『서양사 연구』 제 38집.; 이선편, 「‘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유럽통합 사상과 전략-스피넬리의 입헌적 접근을 중심으로-」, *ibid.*

20세기 전쟁의 폭력과 야만을 경험한 유럽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유럽 문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럽통합의 문제의식과 연방주의 개념들이 이탈리아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스피넬리의 연방주의 사상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연방주의는 20세기 민족국가의 위기 및 전쟁과 평화에 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스피넬리는 전후 유럽질서를 구상하면서 과열 경쟁과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유럽의 민족국가 체제를 어떻게 평화로운 체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연방주의를 자신이 살아온 20세기의 전체주의와 전쟁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으로 보았다. 그리고 평생을 유럽연방 건설을 위해 헌신했다. 1941년 벤토테네 선언(Manifesto di Ventotene)으로 유럽통합의 정치 무대에 처음 등장한 스피넬리는 전후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과 유럽의회 의원 등을 여러 차례 역임하면서 1986년 사망할 때까지 유럽통합의 발전에 헌신했다.

전쟁 중 스피넬리의 연방주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활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1941년 그가 주도한 벤토테네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1943년 ‘유럽연방주의운동(Movimento federalista europeo, MFE)’ 조직의 창설이다. 1941년 7월 이탈리아의 벤토테네 감옥에서 스피넬리, 로시(Ernesto Rossi), 콜로르니(Eugenio Colorni) 등 반파시스트 지식인들은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을 위한 선언”, 일명 벤토테네 선언을 담배 종이에 작성하여 이탈리아 본토에 반입했다. 최초의 이론적이며 정치적인 반파시스트 유럽 연방주의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이 선언문은 곧바로 인쇄되어 유럽의 주요 저항 조직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세 부분으로 나뉜 선언문은 “근대 문명의 위기”로 시작하는 제 1부와 “전후의 사명: 유럽통합”을 다루는 제2부, 그리고 끝으로 “전후의 사명: 사회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11)</sup> 벤토테네 선언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민족국가의 위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평화를 위한 유럽연방의 건설’이다. 즉, 전후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유럽의

11) 장문석, 「1940년대 이탈리아의 유럽 연방주의 이념의 형성: 스피넬리의 연방주의론을 중심으로」, 『서양사 연구』 제 38집 (2008). *ibid.*, pp.18-19.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는 오직 유럽연방의 맥락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스피넬리는 ‘지금 당장’ 유럽 연방주의 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는 1943년 8월, 핵심 구성원인 스피넬리, 로시, 콜로르니와 연방주의에 공감하는 15명의 반 파시스트 지식인들이 비밀리에 모여 MFE를 결성하는 실천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의자들은 유럽연방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입헌적 접근(constitutional approach)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연방주의자들은 제도의 창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도주의자라고도 불린다.

## 2) 미트레이니(David Mitrany)의 기능주의와 ‘작동하는 평화체제’

12)

이차세계대전의 와중에 연방주의자들과 같이 고전적 민족국가 질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나누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를 드러낸 대표적인 정치학자가 미트레이니였다. 그는 우리에게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 논리는 사회·경제적 필요가 협력을 가져오게 되고 추가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되어 이후 사회통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공동의 이익이 뚜렷한 사회·경제적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면 종국에는 민족국가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통합의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트레이니의 기능주의적 접근의 학문적 논의가 발전한 배경이 된 것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188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태어난 미트레이니는 런던 경제학교(LSE)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런던에서의 학문적 경험과 활동은 그가 자서전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적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곳에서 그는 많은 정치학자와 정치 사상이

---

12) 미트레이니 기능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한 저서를 참조.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Quadrangle Books, 1966); David Mitrany, “Territorial, Ideological, or Functional Organization,” in David Mitrany,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75).

들을 만났다. 그리고 한때 미국으로 건너가 강의와 학문적 활동에 매진했는데, 6년 동안의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미국의 실용주의를 관찰하고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sup>13)</sup> 전쟁 시기, 미트레이니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다른 많은 정치 사상가들과 함께 전쟁 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조직의 창설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1943년 미트레이니는 그의 잘 알려진 저작 '작동하는 평화체계(A Working Peace System)'를 발표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평화는 국가들의 조약이나 협정에 서명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시장을 만들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sup>14)</sup>고 주장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정의하는 평화는 지켜지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평화체계였다.<sup>15)</sup>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이 뚜렷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협력을 확산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sup>16)</sup>

13) 그의 핵심 사상인 국제 평화구축을 위한 기능주의 이론은 1920년-1930년대 그의 국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4년 동안 루마니아 대사관과 영국 외무부 및 전쟁 오피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국제연맹 협회의 첫 번째 활동 회원이 되어 국제연맹의 필요성과 이러한 국제조직이 국제사회에 가져올 희망(평화시스템)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한때 미국으로 건너가 강의와 학문적 활동에 매진하기도 했다. 1938년 뮌헨 위기로 유럽에 전운이 감돌자, 영국 외무부의 요청으로 그는 전쟁 이후 이어질 평화 시기에 대한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트레이니는 유럽의 많은 정치 사상가들을 만났고 지속적인 세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능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미트레이니의 생애와 학문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David Mitrany, “An Appreciation of His Life and Work,”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No. 4 (1998), pp.577-592.

14)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An argument for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20:1 (1944); David Mitrany,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5).

15)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p.92.

16)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영토와 주권 등 본질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이슈는 타협이나 강제력을 통해 외견상의 평화는 가져올 수 있어도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이 뚜렷한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중국에는 국가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평화는 새로운 평화 시스템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킬 수 있고,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트레이니의 기능주의는 제도의 창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연방주의와 비교할 때 차이가 분명해진다. 그는 유럽통합과 같은 국제적 협력은 연방국가의 창설과 같은 위로부터의 정치적 결정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며, 유럽사회의 점증하는 기능적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7)</sup> 즉, 연방주의자들이 국가의 주권을 한꺼번에 모두 이양함으로써 한순간에 연방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미트레이니는 기능적 통합으로 주권이 점진적으로 이양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연방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모네의 알제리 구상(La Réflexion d'Alger)과 유럽통합<sup>18)</sup>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삶을 전쟁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살았던 모네가 근본적으로 천착했던 문제의식은 유럽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었다.<sup>19)</sup>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체를 통하여

17) 신종훈, 「유럽통합 연구사: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근」, 『한국사학사학보』 제 25권 2011. pp.264-265.

18) FJME AME 33/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5.08.43); FJME AME 33/2/11: “Je Considère comme admise l'idée de faire l'Europe [...]”, (20.08.43); FJME AME 33/2/14: “L'organis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de l'Europe occidentale”(La date n'est pas identifiée).

19)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네는 연합국 군수물자 조달 위원회(Inter-Allied Maritime Commission)에서 활동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프랑스 대표 위원으로 파리평화회의(1919)에 참석하였고, 이후 1919년부터 1923년까지 국제연맹 사무국에서 활동하였다. 1938년 뮌헨 협정 이후, 유럽에 다시 전운이 감돌자 프랑스 수상 달라디에(Edouard Daladier)의 임명을 받고 모네는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네는 제1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공동 군수물자 조달 조정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1943년에는 루스벨트의 특명을 받고 알제리에 파견되었다. 당시 알제리에는 연합국이 인정하는 두 개의 자유 프랑스 독립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프랑스를 탈출해 처칠 Churchill)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프랑스 자유 운동을 해왔던 드골(Général De Gaulle)과 그를 추

유럽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측면에서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은 미트레이니의 기능주의 이론과 일견 유사성을 보인다.<sup>20)</sup> 모네의 유럽통합 사유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전쟁의 와중에 전쟁으로 파괴된 프랑스와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많은 정치가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벨기에 정치가이자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팍(Paul-Henri Spaak)은 1941년 모네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전후, 특히 평화가 보장되는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모네는 나에게 자신의 철학과 1950년대 슈만플랜에서 주장될 핵심 내용과 계획을 자주 설명하곤 했다.”<sup>21)</sup>

전쟁 시기, 모네의 유럽통합 사유는 1943년 알제리 구상(Réflexion d'Alger)에 상세히 담겨있다. 알제리 구상에서 모네는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문명을 세울 방법으로 유럽통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유럽연방 또는 유럽 연합체(Fédération européenne ou l'unité européenne)<sup>22)</sup>와 같은 유럽통합

---

중하는 드골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에 항복한 친독 정권인 비시 정부에 맞서 반독일 운동을 개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며 한때 나치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 당시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총사령관이었던 지로 장군(Henri Giraud)과 그를 구심점으로 모인 저항 단체였다. 루스벨트와 지로가 둘 다 비시 정부를 인정했던 반면, 드골은 비시(Vichy) 정부에 맞섰다. 연합국의 입장에서 프랑스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큰 고민거리였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프랑스의 분열뿐만 아니라 미래 프랑스의 분열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이와 같은 갈등을 우려한 끝에 그 해결책으로 모네의 알제리 과전을 결정했다. 전쟁 시기 모네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유정, 「냉전이 선택한 ‘유럽의 아버지,’ 장 모네」, 『역사와 문화』 제23호, (2012); 김유정, 「양차 대전 시기 장 모네의 활동과 유럽 평화 구상」, 『통합유럽연구』 제 9권 2호, (2018).

- 20)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논문에서 모네가 미트레이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ihai Alexandrescu, "Jean Monnet-From the Marshall Plan to the British refusal," *Journal of Global Politics and Current Diplomacy*, 2015, pp.6-7. (DOI:10.1038/301887718)

21) Eric Roussel, *Jean Monnet*, (Fayard: Paris, 1996), pp. 371-372

22) 당시 모네가 제시하고 있는 유럽연방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네는 유럽대륙의 모든 국가(une fédération englobant tous les pays du Continent)를 포함한 ‘유럽연방(La Fédération européenne)과 서유럽연방(La Fédération d'Europe

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서론에서 그는 1919년의 베르사유 체제와 같은 해결 방식의 한계점을 비판한 후, 전후 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항구적 유럽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통합 방식을 열거했다. 유럽통합에 대한 모네의 첫 번째 사색으로 간주되고 있는 알제리 구상은 유럽의 평화 정착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합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유럽통합 연구자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1차 사료가 된다.<sup>23)</sup> 이 문서에서 모네가 핵심적으로 다룬 주제는 4가지이다. 1) 유럽의 영구적 평화정착(La paix) 문제, 2) 유럽연방 또는 유럽 연합체(Fédération européenne ou l'unité européenne) 창설 문제, 3) 독일 문제(La Question allemande) 해결, 4) 경제협력체(une unité économique) 창설 문제. 이 구상은 모네가 자서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1950년대의 통합계획들 즉, 슈만플랜이나 ECSC의 지적 청사진<sup>24)</sup>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알제리 구상의 핵심 요지는 ‘전후 유럽의 평화구상’이었다. 그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무엇보다 유럽이 유럽연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연방체제는 경제적인 통합의 성격을

---

Occidentale)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방을 언급할 때 그는 응집력 있는 정치적 연합체인, 예를 들어 스위스나 미국과 같이 주권 일부를 새로운 체제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하는 연방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어떤 한 정복자의 패권적 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이비 연방(une pseudo-Fédération)과는 구별했다. 또한, 모네는 지역과 연방의 성격에 따라 4가지 차원의 연방체를 제시했다. 1) 프랑스-영국 연방, 2) 서유럽의 철강 산업 연합체, 3)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포함된 라틴 블록, 4)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및 스위스가 포함된 연방, 더불어 그는 독일을 포함한 연방도 시사했다. 다만 조건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잊히는 한 참 후이나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FJME AME 33/2/14: «L'organis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de l'Europe occidentale»(La date n'est pas identifiée)

- 23) 알제리에서 모네는 프랑스와 동시에 유럽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전후 프랑스 경제복구를 위한 작은 소규모 경제전문가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메이어(René Mayer), 에르베(Alphand Hervé) 이르쉬(Etienne Hirsch) 그리고 마졸린(Robert Marjolin)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1950년대 모네의 유럽통합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활동했던 조력자들이었다. 모네는 이들 전문가 그룹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다수의 “알제리 구상(Réflexion d'Alger en 1943)” 문서를 작성했다.

24) Jean Monnet, *Mémoires*, p.423.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sup>25)</sup> 모네 사상의 핵심은 그 어떤 제도나 단순한 협력보다도 공동의 이익 창출이 전쟁을 막는 가장 단순한 원리라는 판단이었다.<sup>26)</sup> 특히, 전후 유럽이 주권국가들로 구성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며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모네는 구체적인 경제협력이 유럽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이유로 알제리 구상은 경제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관세동맹을 초월한 유럽 경제공동체 창설에 관한 것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아우르는 석탄·철강 생산지역의 단일한 경제 협력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이 이 문서에 담겨있다. 한편, 모네는 사람과 자본과 상업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럽자유무역지역 창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특히, 경제통합으로 모네가 가장 주목했던 산업 분야는 철강산업이었다. 왜냐하면, 철강산업은 유럽경제통합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르와 루르 지역을 포함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영토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모네의 알제리 사유는 1950년대까지 지속하여 ECSC의 출범과 고위관청(Hight Authority)을 창설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25) Jean Monnet, «Notes de réflexion de caractère politique » Avril-mai 1952, *À l'écoute de Jean Monnet*, Lausanne, FJME, 2004, p.97

26) 공동의 이익 창출이 전쟁을 막는 가장 단순한 원리라는 사실을 모네는 1920년대 독일과 폴란드 간의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부 실레시아(Upper Silesia)지역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면서 터득하였다. 실레시아의 광산 지역은 석탄단지로서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철강단지는 2백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위해 부를 창출 하였으며, 이 주민 중 1/3은 독일인, 나머지 2/3는 폴란드인으로 구성되었다. 폴란드인들은 이 지역 전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한편, 독일인들은 독일 전체 생산량의 1/4을 차지하는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집착했다. 모네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공동의 이익을 찾아 조직하고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판단하기에, 폴란드의 강철은 독일의 석탄이 필요했고 폴란드 노동자들은 독일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직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평화적인 상태로 만들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의 규칙과 공동관리를 위한 기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ean Monnet, *Mémoires*, p.121.

27) FJME AME 33/1/4: Note de Jean Monnet, (05.08.43)

연방주의, 기능주의 그리고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은 각각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 다른 조건 속에서 발아했지만 모두 전쟁의 한 가운데서 탄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위협과 국가의 폭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유럽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요성을 위해 유럽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문제의 해결과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다. 스피넬리는 유럽연방의 창설을 통해서 유럽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헌법 제도의 수립을 주장했다. 한편, 지속 가능한 경제 공간을 통해 더 현실 가능한 해결책으로 유럽의 평화 정착을 고려했던 미트레이니와 모네는 이익의 관점에서 통합의 체계화를 주장했던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전개된 모네의 ECSC는 ‘초국가주의(supernationalism)’를 포함하고 있어 미트레이니의 기능주의 유럽통합 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III. 전쟁을 예방하는 해결책으로서 ECSC

“우리는 유럽이 통합되었을 때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Jean Monnet)<sup>28)</sup>  
 “공동의 이익을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공간의 창출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Jean Monnet)<sup>29)</sup>

슈만플랜과 ECSC에 관한 연구는 유럽통합사 사례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다. 최초의 유럽통합 기구라는 점에서 그리고 혁신적인 초국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ECSC는 역사가들의 관심을 받을 만했다. 이들은 왜 프랑스가 오랜 갈등과 증오의 대상인 독일을 새로운 협력관계로 받아들였는지, 첫 번째 유럽공동체의 기초로서 유럽인들은 왜 석탄과 철강산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통합의 방법으로 유럽이 자국

28) Jean Monnet, « Notes de réflexion de caractère politique » Avril-mai 1952, *À l'écoute de Jean Monnet*, Lausanne, *FJME*, 2004, p.97

29) Jean Monnet, *Mémoires*, p.121.

의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초국가적 접근을 수용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열거하며 슈만플랜 및 ECSC의 기원과 발전에 관해 설명했다. 논의를 종합해 보면, ECSC는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안보정치의 목적이 강했고 무엇보다 독일의 경제적 잠재성을 견제하고자 했던 경제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논의되고 있다.<sup>30)</sup> 특히 유럽이 석탄과 철강산업 분야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초국가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측면에서 ECSC는 경제적인 동인보다 전쟁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심리적이며, 역사적이고, 군사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작동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본 연구의 논지도 이와 같은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본 글에서는 모네가 작성한 사료를 토대로 전쟁을 예방하는 해결책으로서 ECSC의 기원과 초국가적 유럽통합 방법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1950년대 모네가 작성한 슈만플랜 및 ECSC 기획안은 ‘독일 문제(Problème allemand)’에 대한 심각성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슈만플랜의 서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네의 사유가 무엇보다 유럽에서의 ‘독일 문제’ 해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이 유럽이 ‘독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독일 문제’란 독일이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통해 유럽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모네는 유럽의 모든 문제가 루르와 로렌(Ruhr and Lorraine)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럽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보다 ‘독일 문제’ 해결에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sup>31)</sup> ‘독일 문제’가 그의 유럽통합 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였던 점은 프랑스의 대독일 외교정책

30) Pierre Gerber, “La genèse du plan Schuman des origines à la déclaration du 9 mai 1950”,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I/3 (1956), pp. 539-542; E.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Lond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William Diebold, *The Schuman Plan, a Study in Economic Cooperation, 1950-1959*, (New York: Praeger, 1959); D.C.Bok,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Schuman Pla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55).

31) Jean Monnet, *Mémoires* p.320.

에 대한 고민과 슈만플랜 및 ECSC의 탄생 관계를 보여주는 모네의 많은 사료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sup>32)</sup> 슈만플랜이 발표되기 며칠 전, 그는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프랑스와 유럽이 직면한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만일 독일의 개발이 유럽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끌리지 않는다면, 독일은 즉각적으로 프랑스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미래에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암세포가 될 것이다.”<sup>33)</sup>

모네의 설명에는 간단하지 않은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핵심은 전후 루르 지역의 철강 생산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무한정 개발될 때 독일의 경제력은 프랑스를 압도할 것이고, 강대국이 된 독일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두려움은 독일의 잠재적인 경제생산 능력이 지난 양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새로운 전쟁의 공격성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기, 드골도 “프랑스가 겪는 고통 대부분이 라인강에서 비롯된다.”<sup>34)</sup>라고 언급하며 ‘독일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했다. 항독 레지스탕스 운동의 계보를 잇는 드골은 종전 직후에는 저항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독일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1945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드골은 “독일이 지난 145년 동안 프랑스를 일곱 번(1792, 1793, 1814, 1815,

32) FJME AMG 5/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28.04.50);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3.05.50) [note confidentielle]. 프랑스의 대독일 외교정책에 대한 고민과 슈만플랜 탄생에 관한 연구는 김유정, 『프랑스 독일 정책의 딜레마와 유럽통합, 1944-1950』, 『독일연구』 제29호(2015) 참조.

33)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3.05.50), [note confidentielle]. 이 밖에도 독일 경제력 및 세력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슈만플랜 및 ECSC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모네의 사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FJME AMG 5/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28.04.50); FJME AMG 1/1/4: Note de Jean Monnet intitulée <Réflexion à la veille des consultations entre les Gouvernements des Etats-Unis, de la Grande-Bretagne et de la France>, (01.05.50).

34) Ernst Weisenfeld, *Quelle Allemagne pour la France?* (Paris: Armand Colin, 1989), pp.17-31.

1870, 1914, 1940년) 침략했고 과리를 네 번(1814, 1815, 1871, 1940)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프랑스인들에게 재차 상기시켰다. 그리고 프랑스의 안전을 위해 독일의 회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이후에도 독일에 대한 강경 입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드골은 계속해서 “독일이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 즉 제국(Reich)으로 재건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독일을 비스마르크 통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곤 했다.<sup>35)</sup> 당시 독일에 대한 드골의 증오심과 불안감은 대다수 프랑스인의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프랑스는 해방되었지만, 독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두려움은 여전했고, 프랑스는 어렵고도 민감함 ‘독일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프랑스가 ‘독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독일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자는 주장이었다. 종전 후 프랑스의 중심적인 독일 정책은 일명 ‘독일 분할 정책’으로서 독일 최대 산업 지역인 루르 지역의 산업을 독일에서 분리하여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독일 최대 지하자원 매장 지역 중 하나인 자르와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예속하는 것이었다. 독일 군수산업 및 경제의 중핵이자 핵심 자원인 석탄과 철강 생산 능력을 제한해서 독일을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전후 프랑스 對 독일 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1947년부터 냉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와 함께 유럽에서 독일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했던 미국의 반대에 크게 부딪혔다. 프랑스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종국에는 미국과의 견해차가 커져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프랑스에 더 심각한 상황의 전개는 미국이 프랑스의 동의 없이도 독일 경제의 활성화 및 재무장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었다.<sup>36)</sup>

35) Charles de Gaulle, “Discours prononcé à Bar-le-Duc du 28 juillet 1946”, et Ch.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Volume II, Dans l'attente 1946-1958* (Paris: Plon, 1970), pp. 13-14.

36) 한국 전쟁으로 냉전이 점차 글로벌화 될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유럽 주변국의 승인 없이도 서독의 재무장을 강행할 기세였다. 독일 재무장의 당위성에 대한 미국의 논리적 주장은 간단했다. 독일은 냉전의 핵심 국가이므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

다른 하나는 주로 프랑스의 일부 경제전문가 그룹에서 주장되었던 것으로 독일의 주요 산업을 해체하기보다 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을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sup>37)</sup> 이들 전문가 그룹은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패배했던 주요인이 프랑스의 석탄 및 철강산업의 부진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의 활용이 프랑스가 직면한 경제문제 및 전후 복구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즉, 독일 경제를 억제하기보다 독일의 철강산업을 프랑스의 경제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독일 경제의 활용은 그것이 프랑스를 위한 방편이라 해도 곧 독일 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독일 재건에 대한 두려움<sup>38)</sup> 거의 국민적 강박관념 수준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프랑스에 큰 부담을 주는 제안이었다.<sup>39)</sup> 결과적으로 전후 프랑스는 독일 경제의 억제와 활용이라는 외교적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1950년 5월 3일, 모네는 당시 냉전의 긴장 속에서 새롭게 전개된 ‘독일 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응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재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37) Sylvie Lefèvre, *Les relations économiques franco-allemandes de 1945 à 1955: De l'occupation à la coopération*, (Paris: 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11).

38) 지난 역사에서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한 프랑스의 트라우마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었다. 사실, 19세기 이래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내 주도권 경쟁과 전쟁으로 점철된 대표적인 숙적관계였다. 나폴레옹이 주도한 프랑스의 독일 정복과 지배, 1870~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1939-1945)의 히틀러 독일의 프랑스 점령 등. 양국은 전쟁과 복수를 반복한 오랜 적대적 관계를 이어왔다. 이 네 번의 큰 전쟁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제외하고 파리는 독일에 의해 두 번이나 함락되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독일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개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39)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조. Gérard Bossuat, *Les aides américaines économiques et militaires à la France, 1938-1960: Une nouvelle image des rapports de puissance* (Paris: 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01); Sylvie Lefèvre, *Les relations économiques franco-allemandes de 1945 à 1955: De l'occupation à la coopération* (Paris: 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09).

"현재 세계 차원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유럽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독일문제, 프랑스 복구 문제, 유럽의 조직, 그리고 프랑스의 유럽과 세계 속에 있는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이 불가피한 전쟁(냉전)과 연결되어 결정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sup>40)</sup>

‘독일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결정도 쉽지 않았던 프랑스에 모네는 그 해결책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포함된 유럽경제 공간의 창설’을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가 독일 경제력에 대한 두려움과 독일 경제를 억제하는 정책을 버리고, 대신 유럽의 철강 연합과 같은 유럽적 경제 공간의 창설을 통해서 프랑스가 당면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50년 5월 10일 슈만은 독일의 미래와 독일의 생산 할당량을 늘리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베빈(Ernest Bevin)과 에치슨(Dean Acheson)을 만나러 런던으로 떠났다. [...] 프랑스가 독일 산업의 지배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유럽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거될 수 있었다. [...] 아주 자연스레 나는 전쟁 중 여러 경제전문가와 논의했던 계획을 떠올렸다. 그 당시 그것은 국경이 다시 그어져야 했던 전시 지도에 그려진 지적 청사진이었다. 이제 나는 그 청사진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현재의 필요에 따라 다시 고쳤다.”<sup>41)</sup>

이처럼 1950년대 작성된 모네의 많은 문서에는<sup>42)</sup> 프랑스의 경제회복과 동시에 독일에 대한 안보 부담을 더는 방편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모네는 유럽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프랑스가 직면한 독일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유럽이 베르사유 체제와 똑

40)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3.05.50) [note confidentielle]

41) Jean Monnet, *Mémoires*, p. 423.

42) FJME AMG 5/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28.04.50).; FJME AMG 5/1/4: “Réflexion à la veille des consultations entre les gouvernements des Etats-Unis, de la Grande Bretagne et de la France,” (03..5.50);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3.05.50) [note confidentielle].

같은 방식으로 독일 문제와 유럽의 평화문제를 해결한다면, 독일이 유럽에서 또 다른 위기와 긴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피력했다. 무엇보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 간의 우열관계를 재정립하는 억제정책은 유럽의 긴장을 다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독일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모네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은 ‘평등(l'égalité)의 원칙이었다. 모네는 독일과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만이 유럽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sup>43)</sup>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1919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평화는 승자도 패도 없는 다시 말해 동등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단언컨대, 차별과 우열이라는 감정으로서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sup>44)</sup>

영국의 역사학자 밀워드(Alain Milwar)가 설명하고 있듯이, 모네의 ECSC 구상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처한 전쟁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으로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구제하는 ‘유럽적 해결책’<sup>45)</sup>이었다. 그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네는 독일의 자원, 특히 독일의 석탄을 프랑스 철강 생산 산업의 확장을 돕는 잠재적인 대체 자원으로 보았고, 따라서 독일 산업의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네는 독일자원에 대한 ‘유럽적 공동관리’라는 해결책을 통해 프랑스가 직면한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했다. 베르투완(Georges Berthoin)은 이것을 마치 콜롬버스가 인도에 가려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과 같은 여정에 비유했다.<sup>46)</sup> 즉, 모네가 ‘독일 문제’와 프랑스의 안보 위협을 고민하다가 유럽이라는 확장된 경제 공간이라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주요 목적은 프랑스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는데 독일을 유럽에 결박하는 방식

43)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3.05.50) [note confidentielle].

44) Jean Monnet, *Mémoires*, p.410.

45) Alain S. Milwar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1*, (London: Routledge, 1984)

46) Georges Berthoin and Éric Roussel, “[Entretien], p.59.

으로 독일재건이 가져올 세력화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일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이 ECSC가 발의된 프랑스의 주요한 동기였다는 점을 밑위드는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ECSC는 독일의 세력화와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었다. 프랑스가 지난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프랑스에게 있어 독일은 힘으로나 외교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대상이었다는 점이었다. 뒤늦게 산업화한 독일에 프랑스는 매번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경험했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독일이 무력으로 유럽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시도를 막아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히틀러 독일의 유럽정복을 막지 못했다. 2차 대전 후 제기된 더 큰 고민은 패전국인 독일이 인구와 경제력에서 프랑스를 압도할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경제와 군수물자의 핵심 열쇠인 석탄·철강 산업을 공동 관리하는 유럽적 경제 공간의 창설이라는 모네의 아이디어는 프랑스 정부를 설득시키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ECSC의 핵심 방법이기도 한 초국가적인 유럽통합(supranational integration)은 독일을 유럽 차원의 경제 공간에 결박하겠다는 프랑스 특단의 조치였다. 초국가적인 성격이 부재한 유럽기구인 유럽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모네는 계속해서 고위관청(High Authority)의 ‘초국가성(supranationality)’이 유럽 차원의 협력 시스템에 독일을 결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모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독일을 유럽의 제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초국가적인 방법은 독일이 정치·경제적으로 재건된 이후에도 독일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7)</sup> 그러므로 초국가성은 어디까지나 독일의 세력화를 관리하고 전쟁을

47) 초국가적 통합방식에 대한 모네의 주장은 EDC의 창설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모네는 ECSC가 확장된 성격의 즉, 초국가적 안보기구를 통해 독일의 재무장 및 유럽의 안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초국가적인 성격이 부재한 유럽기구는 독일의 재무장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영구적 평화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내용은 1950년대 모네와 슈만이 교환

예방하기 위해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고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럽통합 대응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슈만플랜 및 ECSC를 추진했던 프랑스의 주요 동기는 역설적으로 프랑스의 안보 위협 또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냉전이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루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직접적인 관할이 불가능해지자, 프랑스는 초국가적인 유럽통합이라는 방식으로 독일의 경제력과 세력화를 통제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자국의 석탄 및 철강산업의 일부 주권을 양도해야만 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독일의 경제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독일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CSC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의 협력관계에서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한편 높은 경쟁력을 가진 독일 산업이 초래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 독일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ECSC는 비록 그것이 독일 경제의 활용과 억제라는 프랑스 외교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에는 유럽의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럽적 해결책'이라는 더 큰 의미로 귀결되었다.

#### IV. 결론

1950년 6월 23일, 프랑스 유명 일간지 *Ce Soir*는 "모네가 비스마르크, 빌헬름 2세 그리고 히틀러에게 크게 복수했다."<sup>49)</sup>라는 제목으로 유럽의 평화

---

했던 서신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FJME AMI 4/4/2: T  l  gramme    Robert Schuman de Jean Monnet (14.09.50)

48) Pierre Gerber, "La gen  s du plan Schuman des origines    la d  claration du 9 mai 1950", *Revue Fran  aise de Science Politique*, VI/3 (1956), pp.539-542.

49) FJME AMR 1/48: "Jean Monnet: III. Bismark, Cuillaume II et Hitler sont veng  s: la conf  rence du 'pool' s'appr  te    livrer aux magnats de la Ruhr ce qu'ils n'avaient pas r  ussi    leur donner," de Michel Rouz  . *Ce Soir*, (23.06.50).

를 위한 모네의 노력과 성공을 칭송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모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슈만플랜 및 ECSC가 19세기부터 지속해 온 프랑스와 독일 간의 오랜 갈등을 끝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불편한 관계'가 아닌 '화해와 연대의 상징'이 되어 유럽통합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랭(Gilles Grin)은 당시 모네의 유럽통합 방법이 매우 혁명적인 유럽 계획이었다고 설명한다.<sup>50)</sup> 분명 모네의 초국가적인 유럽통합 계획은 지금까지 유럽이 가보지 않은 야심에 찬 계획이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에 위기는 그 과정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전쟁의 참혹함과 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관점의 전환이 모색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인 역사학자 쥬트(Tony Judt)의 "1차 세계대전은 (구)유럽문명을 파괴했지만, 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유럽 건설의 조건(토대)을 만들었다."<sup>51)</sup>라는 설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1975년 모네는 그의 나이 87세에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접고 파리 근교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고, 1979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삶의 대부분을 전쟁과 분열로 점철된 유럽의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네는 우리에게 헤밍웨이가 남긴 '노인과 바다'의 문구를 연상케 한다. "인간은 파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인 역사가 웰스(Wells Brown Serill)는 모네를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강조하기보다 '문제 해결사(The problem solver)'로 정의하길 좋아했다. 실제로 모네는 유럽통합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그의 시대에 위기에 직면한 유럽을 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21세기 초 여전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EU에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과 활동은 과연 위기 해결을 위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 모네의 삶을 통해서 위기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50) Gilles Grin, "Jean Monnet est les Crises européennes," *Construction Européenne: Crises et Relances*, (Lausanne: Fondation Jean Monnet pour l'Europe, 2008) pp.29.

51) Tony Judt (조행복 옮김), 『포스트 워, 1945~2005』, (플래닛, 2008), p.26.

## 참고문헌

### 1차 사료

- FJME(Fondation Jean Monnet pour l'Europe, 이하 FJME) AMR 1/48: “Jean Monnet: III. Bismark, Cuillaume II et Hitler sont vengés: la conférence du ‘pool’ s’apprête à livrer aux magnats de la Ruhr ce qu’ils n’avaient pas réussi à leur donner,” de Michel Rouzé. *Ce Soir* (23.06.50).
- FJME AME 33/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5.08.43).
- FJME AME 33/2/11: “Je Considère comme admise l’idée de faire l’Europe [...]”, (20.08.43).
- FJME AME 33/2/14: “L’organis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de l’Europe occidentale” (La date n’est pas identifiée).
- FJME AME 33/1/4: Note de Jean Monnet, (05.08.43).
- FJME AMG 5/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28.04.50).
-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 (03.05.50) [note confidentielle].

### 2차 문헌

- 신종훈, 「유럽통합 연구사: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근」, 『한국사학사학보』 제 25권 (2011).
- 이선필, 「‘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유럽통합 사상과 전략-스피넬리의 입헌적 접근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 16권 제 1호 (2009).
- 장문석, 「1940년대 이탈리아의 유럽 연방주의 이념의 형성: 스피넬리의 연방주의론을 중심으로」, 『서양사 연구』 제 38집 (2008).
- Tony Judt (조행복 옮김), 『포스트 워, 1945~2005』, (플래닛, 2008)
- Alain S. Milwar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1*, (London: Routledge, 1984)
- Charles de Gaulle, “*Discours prononcé à Bar-le-Duc du 28 juillet 1946*”, et *Ch. de*

- Caillaux, Discours et messages*, Volume II, Dans l'attente 1946-1958 (Paris: Plon, 1970)
-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An argument for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20:1 (1944)
- David Mitrany,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5).
- D.C.Bok,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Schuman Pla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55).
- E.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Lond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 William Diebold, *The Schuman Plan, a Study in Economic Cooperation, 1950-1959*, (New York: Praeger, 1959)
- Eric Roussel, *Jean Monnet*, (Fayard: Paris, 1996)
- Georges Berthoin and Éric Roussel, "[Entretien]: L'héritage de Jean Monnet, entretien avec Georges Berthoin réalisé par Eric Roussel", *Revue des Deux Mondes* (AVRIL, 2012)
- Ernst Weisenfeld, *Quelle Allemagne pour la France?* (Paris: Armand Colin, 1989)
- Gilles Grin, "Jean Monnet est les Crises européennes," *Construction Européenne: Crises et Relances*, (Lausanne: Fondation Jean Monnet pour l'Europe, 2008)
- Jean Monnet, *Mémoires*, (Paris: Fayard, 1976)
- Jean Monnet, « Notes de réflexion de caractère politique » Avril-mai 1952, *À l'écoute de Jean Monnet*, Lausanne, FJME, 2004,
- Mihai Alexandrescu, "Jean Monnet-From the Marshall Plan to the British refusal," *Journal of Global Politics and Current Diplomacy*, 3(1): 5-11 (2015)
- Pierre Gerber, "La genèse du plan Schuman des origines à la déclaration du 9 mai 1950",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I/3 (1956)
- René Girault (dir.), *Identité et Conscience européennes au XXe siècle* (Paris: Hachette, 1994)

Sylvain Kahn, "Les crises dans l'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de 1950 à nos jours: comparer pour comprendre," *L'Europe à l'épreuve des crises*, colloque du 21 octobre (Paris: HAI, 2016),

Sylvie Lefèvre, *Les relations économiques franco-allemandes de 1945 à 1955: De l'occupation à la coopération*, (Paris: 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11)

William Diebold, *The Schuman Plan, a Study in Economic Cooperation, 1950-1959*, (New York: Praeger, 1959)

〈Abstract〉

## Crises of War and European Integration: Background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Kim Yoo-Joung\* · Kim Seong Ju\*\*

The European Union (EU), which guaranteed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after the two World Wars, has faced a series of consecutive crises and challenges since the late 2000s. Some analysts have even diagnosed a pessimistic outlook for the future of Europe due to this continuous string of crises. Such a reality has prompted inquiries into the continuity of the EU itself. Is the EU genuinely sustainable? If it endures, can it evolve into a more robust political integration body? Enduring amidst the prevailing ascendancy of nationalism and external pressures, can the EU steadfastly preserve unity within diversity? This study, which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sis of war and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primarily aims to find insights into the current future of the EU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rises and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Throughout the past 70 years of European integration, Europe has faced numerous crises. In 1954, with the failure of the European Defense Community (EDC) treaty, journalists questioned the uncertain future of integration. Jean Monnet, in response, asserted that Europe would learn about integration through crises. Moreover,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the first institution of European integra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

\* Lectur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sylvie12@daum.net)

\*\* Gradua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doktor@naver.com)

crises in Europe during the 20th century, including the World Wars and the Cold War. Therefore, Monnet explained that Europe was born out of crises. This study will explore the origins of the ECSC and the significance of supranational European integration methods, examining how crises of war can strongly reinforce the necessity for integration.

**Keyword:** Crisis of EU, EU, Jean Monnet, ECSC, Supranationalism

원고접수일: 2023. 10. 15.

심사마감일: 2023. 11. 10.

게재확정일: 2023. 11. 11.

